

법 어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며 국정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청와대 불자회장의 취임을 축하
하는 자리이자, 청와대 불자들이 신심과
결속을 발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민의 마음을 소신으로 전달
하면서 정부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도
해야하는 청불회원의 책무는 누구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에 좋은 습관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법칙이
있듯이,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하는
국민에게는 그럴만한 훌륭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불회원 여러분께서
그런 원칙의 모범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문화적 소양이 깊고 정신
문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과 행복을 이루는 든든하고
민첩한 손과 발이 되어줄 것으로 믿
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문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
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
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
조 단군의 이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
다.**

**이렇게 백범 선생이 그토록 갈망하
던 문화강국의 꿈은 국민뿐 아니라
인류가 원하는 문화적 감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이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기관이 국민적 절실
함을 놓친 채, 정작 전통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가 가시지 않습니다. 더이상 전
통문화를 개별 유물로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생동
하는 전통과 이를 잇는 생활로, 소중
한 역사교육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강국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
입니다. 청불회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국민을 대신하는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는 그동안 원력과
신심으로 청와대불자회를 이끌어 오신
홍상표 회장님을 이어 박범훈 교육문화
수석비서관께서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청불회를
이끌어오며 진력을 다하신 홍상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시에
앞으로 이끌어 가실 박범훈 회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청불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와대 가
톨릭 회장 김백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범훈 회장님은 문화 예술계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셨음은 물론,
우리 불교문화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곁에서 교육과 문화,
특히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이 박범훈
회장님을 중심으로 신행활동에 더욱
매진하면서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깊은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불기2555년 7월 20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